

## 한편의 노래에 담으신 승고한 뜻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새로 창작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 노래는 새세대 청년들이 백두산의 칼바람맛을 보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에 앞장서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 좋은 노래이러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청년들뿐 아니라 인민들모두가 즐겨불러야 할 좋은 노래이러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혁명의 성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백두산을 그려보게 될것이며 백두산의 기상과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대해 거듭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백두산은 결코 고요한 꽃동산이 아니라고, 우리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이 백두의 메부리에 올라 경치만 부감할것이 아니라 백두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풍상에 대하여 깊이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녕 백두산은 필승의 신념을 버려주고 불굴의 정신을 안겨주는 위대한 혁명의 교정이 아니라.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삶의 순간순간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살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따라 혁명의 한길을 영원히 가고갈 신념의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